

비즈 트렌드 | 영역 넓히는 진격의 편의점

“1인 가구 냉장고 역할”... 장보기 문화가 바뀐다

반찬류·신선식품 편의점서 구매
1~2인 가구에 맞춰 소용량 포장
“퇴근길 필요한 만큼 간편하게”

편의점의 진화는 어디까지일까.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유통 분야의 틈새 시장으로 여겨지던 편의점이 무섭게 영역을 넓히고 있다. 최근 들어 반찬류와 신선식품까지 취급 품목을 넓히면서 1인 가구를 중심으로 편의점 장보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먼저 편의점 반찬류 인기가 무섭다. 편의점 반찬은 1~2인 가구가 이용하기 편리한 소포장 제품이 특색이다. 여기에 가까운 편의점에서 24시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고객에 어필하고 있다. 세븐일레븐이 3월 내놓은 냉장 반찬 ‘밥



CU 냉장육 자판기 이용 모습(위), 세븐일레븐의 냉장 반찬 ‘밥통’ 시리즈. 반찬류와 신선식품이 편의점 새 수익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1인 가구를 중심으로 편의점 장보기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사진제공 | CU·세븐일레븐

통령 연어장’은 출시 40일 만에 50만개 이상 팔렸다. 세븐일레븐은 이 여세를 몰아 4월18일 ‘밥통령 새우장’과 ‘밥통

령 꼬막장’을 추가로 출시하며 상품 확대에 나섰다. GS25가 지난해 출시한 ‘유어스 속초 볶은대게딱지장’도 누적 판매량 290만 개를 돌파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편의점의 반찬이라고 하면 라면에 곁들여 먹는 볶음김치나 단무지 등에 국한됐지만 지금은 다양한 제품군으로 고객 발길을 끌고 있다”며 “편의점이 1인 가구의 냉장고 역할을 하면서 도시락뿐 아니라 밑반찬으로 먹거리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편의점에서 정육, 과일, 채소 등 신선식품 유통이 늘고 있는 것이다. CU는 한우와 한돈을 판매하는 냉장육 자판기를 도입했다. 국거리, 구이, 불고기용 등 가정 수요가 많은 부위를 1~2인 가구에 맞춰 300g 용량으로 소포장한 것이 특징이다.

과일, 채소도 예외가 아니다. GS25는 3월부터 대파, 양파, 고추, 마늘 등 채소 16종을 1인 가구에 맞춰 소포장한 ‘한 끼 채소’를 판매 중이다. 주거 밀집 지역을 위주로 2000여 점포에서 판매 한 달 만에 농산물 매출이 32.3% 늘어났다. 세븐일레븐은 편의점에 특화된 소용량 바나나를 판매하고, CU는 4월 매월 산지에서 직배송한 제철 과일을 선보이는 ‘이 달의 과일’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신선식품은 대형마트, 슈퍼마켓에서 구매한다는 인식이 강했으나 집에서 요리하는 경우가 줄면서 요리할 때 필요한 만큼만 가까운 편의점에서 구매하려는 고객 수요가 늘었다”며 “이제 편의점이 퇴근길에 간편하게 장보는 곳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한 눈으로 보는 경제

30일

코스피지수	2515.38	▲	+22.98
코스닥지수	875.95	▼	-10.54
日 닛케이 지수	2만2467.87	▲	+148.26
中 상하이 종합	3082.23	▲	+7.20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2.22	▲	+0.02
환율 (원·달러)	1068.50	▼	-4.50
국내금값 (원/그램)	4만5258.35	▼	-318.83

동아오츠카, 오라떼 모델 김혜림 발탁



동아오츠카가 유성 과즙음료 오라떼와 함께할 모델로 그룹 라임소다의 김혜림(사진)을 발탁했다. 오라떼는 칼슘과 칼슘의 흡수를 돕는 CCP가 들어있는 무탄산 무색소의 혼합음료로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제품이다. 동아오츠카는 K팝스타6 출신 김혜림을 전속 모델로 선정하고 1020 마케팅에 나설 예정이다. 권보경 오라떼 브랜드매니저는 “혜림의 활기차고 당찬 모습을 통해 10대들의 꿈을 응원하고, 보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모션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이건희家 고가 단독주택 싹쓸이...상위 5위 안에 3채나 올라

서울 100억 넘는 단독 총 21채

서울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공시가 격 261억원의 이견희 삼성그룹 회장 일가의 한남동 집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4월30일 25개 구가 결정해 공시한 단독 및 다가구 등의 2018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밝혔다. 이 자료에서 공시가격 100억원이 넘는 단독주택은 총 21채. 이중 최고가는 이견희 삼성그룹 회장 일가의 한남동 자택으로 지난해보다 40억원(15.3%) 오른 261억원을 기록했다. 2위 역시 이견희

회장 일가가 소유한 이태원동 주택으로 올해 공시가격은 235억원이다. 이어 3위와 4위는 한남동에 신축한 단독주택으로 공시가격이 각각 197억원, 190억원이다. 5위 역시 이견희 회장 일가 소유 주택으로, 공시가격 182억원이다. 공시가격 상위 5위 내에 이견희 회장 일가의 집이 3채나 올라갔다.

또한 상위 10위 초고가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평균 13.1%로 서울 내 전체 개별주택 평균 상승률의 2배에 달했다. 특히 공시지가가 6억원을 넘는 주택의 3분의 1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18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seoul.go.kr)에 공개한다. 5월 29일까지 서울시나 자치구 홈페이지, 주택 소재지 구청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열람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국세 부과 때 과세 표준이 되고, 기초연금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를 정할 때도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제 11회 파라다이스상’ 후보자 모집

파라다이스그룹(회장 전필립)이 후원하고 파라다이스문화재단과 파라다이스복지재단이 주관하는 ‘제11회 파라다이스상’이 21일까지 수상 후보자를 모집한다. 파라다이스상은 2003년 문화예술 발전과 인류 복

지증진에 공헌한 인사들을 포상하고 공적을 알리기 위해 제정했다. 지금까지 10회에 걸쳐25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후보는 사회복지 및 문화예술 각 분야 발전에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이다. 공공기관 및 학술·예술·사회단체·학교 등의 단체장과 시

상 분야 관련 전문성을 가진 개인이 추천할 수 있다. 모집공고는 파라다이스상 홈페이지(award.paradisegroup.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수상자는 9월에 발표한다.

김재범 기자

편집 | 신하늬 기자

스텔라 아르투아, 온라인 광고 공개



벨기에 프리미엄 맥주 스텔라 아르투아(Stella Artois)가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는 당신이 최고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한 신규 광고(사진)를 1일부터 시작했다.

온라인 채널을 통해 공개하는 이번 광고는 한 부자가 식당에서 벨기에 프리미엄 라거 스텔라 아르투아를 즐기는 모습을 그렸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족과 보내는 순간에는 스마트폰을 잠시 꺼놓은 채 여유를 만끽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스텔라 아르투아’는 세계 90여개 국가에서 판매되는 벨기에 1위 맥주이자 세계 4대 맥주로 손꼽힌다. 씩씩한 맛과 청량한 끝 맛이 어우러져 다른 유럽 라거들과 차별화된다. 스텔라 아르투아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의 식사시간 만큼은 스마트폰에서 벗어나 스텔라 아르투아와 함께 지금 이 순간을 즐겨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LG생건 ‘후’, 궁중 문화 캠페인 개최

LG생활건강 ‘후’가 6일까지 경복궁에서 2018 궁중 문화 캠페인 ‘찬란히 빛나는 그녀, 왕후’를 진행한다. 왕과 왕후의 빛나는 순간, 왕후의 빛나는 로얄아트, 해금 특별 공연, 왕후의 연회 등 궁중 문화 이벤트로 구성했다. 이중 왕과 왕후의 빛나는 순간은 왕과 왕후의 만남을 시작으로 화려한 연회 등 다양한 순간을 경복궁 근정전 회랑을 따라 걸으며 감상할 수 있는 복합 전시다.

정정욱 기자



대한민국 명품교육 No.1 에듀윌

교육·퍼즐

에듀윌

현직 주택관리사 인터뷰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

현직 주택관리사가 밝히는 취업 비법 “자신의 경력 활용”

안정적인 노후 직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주택관리사’. 퇴직 이후가 오히려 적기로 60~70대에도 소장 직함으로 꾸준히 일할 수 있는 직업. 연륜이 있을수록 더 빛을 발하는 직업 등이 주택관리사의 수석어다.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이 16회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하고, 현직 주택관리사로 활동 중인 김중해 소장을 만나 취업 비법을 들어봤다.

-이력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은가?

직업을 가질 때는 과거의 사회 경력들이 있을 터. 그 경력을 관리사무소 업무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나는 자동차 정비업에서 25년간 종사했는데 관리 계획서를 만들어 아파트 시설에 대한 관리와 체계 등을 이력서에 같이 첨부해 면접을 봤고 좋은 점수를 받았다.

-구직 활동 시 어떤 것을 준비하면 도움이 될까.

관리비 절감을 위해 인원을 감축하는 곳이 많기 때



오, 관리사무소 업무 관련 경험은 도움이 되겠지요?
관리소장은 한눈에 봐도 업무에 익숙하네요.
관리소장은 한눈에 봐도 업무에 익숙하네요.

전에 현장에 가서 행동도 다뤄보고 시설도 돌아보고 직접 부대끼면서 입주민 민원도 나가보는 것이 좋다. 현장에 나가서 도움이 되고 두려움이 없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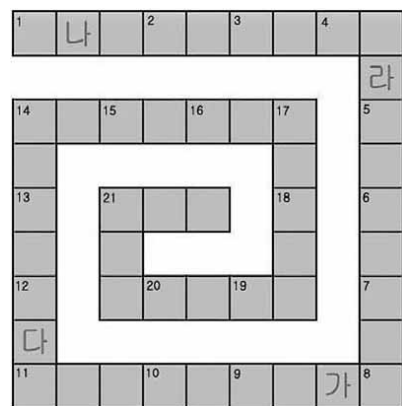
-나이 제한이 없나?

아파트 위탁하는 회사에서 가장 선호하는 나이가 50대다.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와 공감대가 가장 잘 이루어지는 나이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40대부터 70대 등 다양한 연령대가 존재한다. 정년 제한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다.

이수진 기자 sujini22@donga.com

다음 문제의 열쇠를 잘 읽고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써 넣어보세요.

■ 낱말문제



01. 연을 공중에 띄움. 또는 그 놀이. 02. 과학 기술부 장관에 속하여, 기상 상태를 관측하고 예보하는 중앙 행정 기관.

03. 교차로 등에 푸른 등이나 기를 달아 진행을 표시하는 교통 신호. 04. 좋은 일에는 흔히 방해되는 일이 많음. 또는 그런 일이 많이 생긴. 05. 저고리 위에 덧입는 옷. ‘오고오’ 06. 자줏빛의 수정. 07. 조용히 있는 가운데 어떤 움직임이 있음. ‘오중오’ 08. 원 모양의 둥근 형상. 09. 이상으로서 그리하는 미래의 모습. 10. 서로서로 도움. 11. 조마조마하여 마음을 졸임. 또는 그런 마음. 12. 심장이 주기적으로 졸었다 늘었다 하는 운동. ‘오박오’ 13. 짝이 되어 여러 가지 일을 함께 하는 사람이나 집단. 14. 자기가 그런 자신의 초상화. 15. 어지간히 많은 수. 16. 한 단체나 기관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 ‘오뇌오’ 17. 부모나 보호자의 곁을 떠나 일정한 주소나 직업 없이 떠돌아다니는 아이. 18. 맑은 봄날 공중에 아른거리는 공기 현상. 9. 아주 가늘게 오는 비. 20. 비가 오려고 하거나 올 때 비를 맞혀서는 안 될 물건을 치우거나 덮는 일. 21. 쓴 글씨나 그림을 지우는 물건.

■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모두 풀
다음 가. 나. 다.
라를 이어놓으
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화 제
목이 됩니다.

